

존 오스왈트 박사, 열왕기, 21회기, 3부

열왕기하 8-9장, 3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제 오늘 앞서 말했듯이 다른 북엔드로 가보겠습니다. 북엔드 중 하나는 시리아 왕 헤이즐의 임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후의 약속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후는 장군이다. 특히 지금은 왕이 부상에서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므로 그는 이곳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르앗 라못에 있던 사람은 예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 신비이지만,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증거하는 신비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 하나인 선지자의 아들에게 이르되 네가 이 기름을 가지고 속히 가라 하매 히브리인은 허리를 동이라 말합니다. 제가 여기 보고 있는 NIV에는 망토를 허리띠에 집어넣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아이디어는 손을 아래로 내려 가운의 단을 잡아 당겨서 벨트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버뮤다 반바지.

달리다. 그 가운이 발목을 엉키게 하지 마세요. 당겨보세요.

벨트에 넣어두세요. 이동하다. 이 기름병을 받아라.

거기 이르거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만나라. 아마도 유대 여호사밧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아들이 아니라 님시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가 다른 여호사밧임을 시사합니다. 그에게 가십시오. 그를 동료들에게서 떼어내십시오.

그를 안쪽 방으로 데려가십시오. 플라스크를 가져 가세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선포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문을 열고 달려가세요.

그게 뭐야? 음, 음모는 당신이 엉망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할 예정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앉아 있지 마십시오. 들어가고 나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기록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사자가 말하는 내용은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엘리사는 그에게 더 말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물건에 손을 놓은 걸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모른다.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엔 그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는 자신이 말하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여.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너는 네 주인 아합의 집을 멸할 것이요 나는 내 종들과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아합과 오바댜가 몇 마리의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 풀을 구하고 있을 때 그런 길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바댜가 이 선지자들을 죽인 이세벨에게서 숨겼다고 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것이 단지 바알과 야훼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뇨. 아, 그것도 일부예요.

그러나 훨씬 더 깊게 말하면,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하고 현대적이며 기술적으로 유능한 독일이 완전히 폐허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기로 선택한 모든 것이 승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나라가 축복을 받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고, 파멸시키고, 상처받도록 방치하는 나라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나는 내 종들과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와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겠다. 600만 곱하기 몇 쿼트인가요? 오늘 유럽 전역에 피가 퍼졌습니다.

내가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종과 자유인을 다 멸절하리라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북방의 처음 두 대왕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하리니 이세벨은 개들이 땅을 먹을 것입니다.

어머. 이스라엘 땅의 계획. 어떤 땅이요? 나봇의 포도원 부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엘리야가 직접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세부 사항을 안다면 '아, 예, 물론이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서술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는 다시 들어가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게 누구 였나?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아, 알잖아요.

당신은 이 선지자들이 행하는 미친 짓들을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넌 거짓말하고있어. 우리는 그곳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 전체에 기름이 묻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이제 흥미롭지 않나요? 13절, 그들은 급히 겹옷을 취하여 맨 층계 위에 펴고 나팔을 불며 예후의 왕을 외쳤습니다. 우와.

우와. ifs도, ands도, buts도 없습니다. 아니, 글썄요,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것에 대해 모른다.

나에게 그것은 사령관으로서의 예후의 지위에 대한 간증이다. 분명히 그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어디든 따라갈 사람입니다.

이야기의 다른 부분에 대해 다시 궁금해해야 합니다. 여호람, 요람이 멸시를 받았습니까? 요람은 약하다고 생각되었는가?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즉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적어도 일부 군대, 어쩌면 전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약간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쪽 계곡과 벳산 건너편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다. 먼지구름이 보이시죠. 17절에 이스라엘 망대 위에 섰던 파숫군이 예후의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외쳐 이르되 내가 보니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나이다.

기병을 구하라, 요람이 명령했다. 그를 보내어 그들을 영접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히 오느냐? 그는 그의 왕국의 모든 것이 좋지 않고 아마도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받았습니까? 제가 보기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병력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잠깐 기다려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오는가? 평안히 오시나요? 기병은 말을 타고 예후를 만나며 말했습니다.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오시나요?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후는 내 뒤로 넘어지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런 의미가 있나요? 아, 예후, 그건 왕 같은 종류이군요.

조람, 별로.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빵의 어느 쪽에 버터가 발라져 있는지 알 것 같다. 나는 그와 합류합니다.

제가 보기에선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기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이 놀라운 선이, 운전은 님시의 아들 예후의 운전과 같았습니다.

그는 미치광이처럼 운전한다. 수년에 걸쳐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미치광이처럼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서술의 힘이 발휘됩니다. 이야기의 힘.

우리는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먼지 구름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마차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내 마차를 끌어올리라, 요람이 명령했다. 그것이 매어지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더라. 그들은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와 바알 사이의 마지막 갈등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동등하게 다루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6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왕기하 9장은 약 4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해.

숨막히는 세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야훼가 바알로 대체될 것인가?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우울한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끝났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일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인정하세요.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불쌍히 여기소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습니다. 보세요, 가서 헤이즐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 우리 뭐 할까? 아, 빨리요.

동원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 문제는 당신과 내가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